

중부지역에서 최근 들깨 육성품종별 파종시기가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

윤철근^{1*}, 김기현¹, 이경자¹, 이희두¹, 이명희², 하태정², 홍성택¹, 김영호¹

¹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²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076-3,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서론]

들깨의 국내 육성 품종은 종실용으로 다유를 포함하여 25품종, 엽용으로 남천 등 13품종이 육성되어 농가에 보급되어 왔다. 최근 기후온난화로 파종시기의 변화, 작부체계의 다양화, 초형과 숙기에 따른 품종형태의 다양화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최근 육성 품종의 지역 및 파종시기에 의한 생육특성과 수량성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각 지역별 기후에 적합한 우량 품종 선택과 후작물 이용시 작부체계에 적합한 만기재배 적응성 품종 선발 및 특성구명을 통해 들깨 육성품종의 농가 활용도를 높이고 품종별 생육특성 평가를 위해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들깨 파종시기 및 품종별 생육특성 평가를 위하여 제천시 백운면 농가 외지포장에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공시품종으로 안유, 들향, 단조, 조임, 들샘, 소담, 백진, 다유, 대유, 영호, 다미, 대실, 백광, 유진, 새엽실 들깨 등 15품종을 사용하였다. 들깨 파종시기는 조기파종(5월 25일), 적기파종(6월 20일), 만기파종(7월 10일) 3처리로 5립식 점파하였고 발아 후 2~3주 사이에 숙음 작업을 하여 최종 1주 1본을 남겼다. 각 시험구의 면적은 14m²이었고, 제초는 숙음작업과 겸하여 2회 실시하였다. 시비량은 N-P₂O₅-K₂O-퇴비를 4-3-2-1,000kg/10a으로 하여 전량기비로 사용하였으며, 시험구 배치는 파종기별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고 생육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조사기준에 준하였다.

[결과 및 고찰]

들깨 품종 및 파종시기별 개화기 및 수확기를 조사한 결과 5월 25일 파종 처리구에서 안유는 개화기가 8월 21일, 수확기가 9월 22일로 조숙 특성을 보였으며, 들향, 단조, 조임 품종도 개화기 8월 27~29경, 수확기 9월 22~27일경으로 조생종 특성을 보였다. 개화기 및 수확기가 늦는 품종으로는 유진, 새엽실 들깨로 개화기 9월 7일, 수확기 10월 6일로 조사되어 만생종 특성을 보였다. 6월 20일 및 7월 10일 처리구에서도 안유, 들향, 단조 품종은 타 품종보다 개화기 및 수확기가 5~10일정도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진, 새엽실 들깨는 개화기가 5~10일, 수확기도 7일정도 늦어지는 특성을 보였으며, 파종기가 늦어짐에 따라 개화기와 성숙기도 늦어져 파종기가 들깨의 숙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들깨 파종시기 및 품종별 생육특성과 수량을 조사한 결과,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경장은 짧아졌으며, 마디수, 주당분지수, 화방군수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천립중은 모든 품종에서 파종이 늦어질수록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량은 상위 5순위 평가시 5월 25일 파종구에서는 단조, 백진, 들샘, 대유, 새엽실 순으로 6월 20일 파종구에서는 새엽실, 유진, 대실, 다유, 들향 순으로 7월 10일 파종구에서는 다유, 새엽실, 들향, 대실, 백진 등의 순으로 수량이 높은 특성을 보여 파종시기에 따라 품종별로 수량 차이를 보였으나, 6월 20일 적기 파종구에서 수량이 가장 높은(180~132kg/10a) 경향을 보였다. 특히 새엽실 들깨는 처리별로 상위 5순위에 포함되어 있어 단작(180kg/10a) 또는 후작(123kg/10a)재배 시 다유들깨(127kg/10a)와 함께 가장 유망한 품종으로 조사되었다.

[사서]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 「작부체계 적응 들깨 품종별 생산성평가」(과제번호: PJ012501052018)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43-220-5571, E-mail. ycg802@korea.kr